

공보의 감소 심화...전남 농어촌 의료 공백 어찌나

올해 의과 신규 98명...전년비 60% ↓
취약지 전남 179명→129명 50명 감소
정부, 비대면진료 활성화 등 긴급대책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올해 신규 공중보건학사(공보의) 편입이 1년 전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함에 따라 섬·오지 등 농어촌 의료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섬과 농어촌이 많아 공보의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의료취약지 전남의 경우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 수립·추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전남도·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5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1년 전 250명 대비 61.8%나 감소했다. 2026년 복부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이 22%에 불과한 수치다.

전체 의과 공보의 수 또한 2025년 945명에서 올해 599명으로 37.2%나 줄어들며 농어촌 지역의 1차 의료 안전망 유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처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경우 올해 의과 공보의 수가 129명으로 2025년 179명 대비 50명(27.9%) 감소했다. 전국 광역자치체 가운데 경북(6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실제 전남 의과 공보의 수는 2022년 303명, 2023년 267명, 2024년 229명, 2025년 179명, 2026년 129

명으로 4년 사이 57.4%나 줄었다.

복지부는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의 어려움이 의대생 교육 공백 해소, 지역 의사 인력 양성 등으로 공보의가 늘어나는 203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보의 인력이 급감한 현 상황을 지역 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의료 취약도 분석을 통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 집중 대책을 추진한다.

도·시·군·자치단체와 같이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 130개에는 공보의를 우선 배치한다.

아울러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 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공보의 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를 포함시킨다.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하며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 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 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 보건 의료 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취약지 지역 주민이 계산 못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3·15의거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3·15 유족에 정부 첫 공식 사과

현직 대통령 첫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

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잠깐 발언을 멈추고 연단 옆으로 자리를 옮겨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박흥기 3·15의거 기념사업회장 등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경찰의 발표로 총 16명이 희생된 3·15 의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사를 끝낸 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3·15의거의 노래'를 함께 제창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국립 3·15민주묘지 참배단에 헌화하고 방명록에 "님들의 희생과 헌신, 민주주의 완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연합뉴스

'사이버 안전 패키지법' 6건 국회 통과

조인철 "특사경 등 후속 입법 박차"

최근 KT·쿠광·롯데카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사이버 안전 패키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갑)은 15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망법)' 등 5건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디지털포용법)' 1건 등 총 6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망법의 주요 내용은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체계적 마련·보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명시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강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인력·예산 관리 권한 명문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즉시 통지 의무 강화 ▲필요한 경우 중대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조사·조치 가능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침해 사고 발생 이후 '사후 수습'에 머물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예방 단계에서부터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 의원은 "지능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발의된 '사이버 특별 사법경찰' 도입 등 후속 입법 과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與 경선 '미션이벤트·골목 선거운동'...地選 쟁걸음

실생활 행정역량 검증 '홍행 모색'

저인망 선거운동 기구 발족 검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깊은 내홍에 빠져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인 제1야당 국민의힘과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흥행 카드와 함께 저인망식 골목길 밀착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 구성을 검토하면서 선거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5월께 선거대책위 출범과 함께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 기구도 구성해 전면적인 현장 선거전에 나설 방침이다.

21대 대선 당시 운영했던 이른바 '골목골목 선대위'가 효과를 냈다고 보고 유사한 전략을 다시 꺼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지역 위원장으로 당 중진 의원들을 배치하고 군·면 단위까지 누비며 저인망

식 유세를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도 중진 의원은 물론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까지 담당 지역을 배정해 소외된 마을까지 구석구석 누비며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지역담당 공동선대위원장' 체제 구성을 직접 제안했다고 여러 차례 밝히며 이모델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왔다.

그는 당시 광주·전남 지역 위원장을 맡아 '호남 한달살이'를 하며 군·면 단위 지역까지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15일 "대선때 골목골목 선대위 효과가 컸고 대표 본인도 호남에서 직접 체험한 것 같다"며 "(대표 취임 후) 현장 최고위원회를 군 단위에 가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

장의 예비후보 경선 흥행을 위해 경선 과정에서 다양한 '미션형 이벤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정경발표나 토론회 등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실생활과 좀 더 밀접한 상황을 차용해 유권자 관심을 끌어들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예비 후보들이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산 뒤 예상 물가를 적고 실제 가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장바구니 미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 후보들에게 싱크홀 사고 발생이나 폭우 등 재난·재해 상황의 구체적 시나리오를 주고 실생활 역량을 검증하는 '리스크 관리' 미션도 실시한다. 일자리, 주거, 자산 증식 등을 키워드로 한 퀴즈형 미션도 검토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준비 정도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